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최현철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  
2024. 7. 31.(수)

제 목

신규 바이오 사업을 소재로 631억원 상당  
부당이득을 취득한 주가조작 사범 3명 구속 기소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 금융·증권범죄 합동수사부(부장 공준혁)는 신규 바이오 사업을 소재로 삼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가 조작 사범 3명을 오늘(7. 31.) 구속기소하였습니다.
- 주가조작 일당은 전기·조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사(코스피)를 무자본 인수한 다음 2018.경 1,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·투자하여 美 바이오 회사와 암치료제 공동개발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합계 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을 설계·실행하였습니다.
- 약 1년 5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로 다수 증거를 확보하여 이 사건 바이오 사업이 허구임을 밝혀내는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고 국내 및 해외도피한 주가조작 사범들을 검거하여 구속하였습니다.
  - 주가조작 사범들 중 국내에 있던 2명은 '24. 7. 8. 구속하였고, 해외로 도피했던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'24. 6. 23.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 후 국내 송환하여 '24. 7. 20. 구속하였습니다.
  - 현재 해외도피 중인 총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다수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·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,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 1

## 피고인 등

피고인(피의자)	지위	처분	피고인(피의자)	지위	처분
A (55세)	甲사 前 부회장	구속 기소	B (47세)	甲사 前 대표이사	구속 기소
C (54세)	甲사 前 부회장	구속 기소	(D) (57세)	甲사 회장	기소중지 (해외도피)

# 2

## 공소사실 요지

- '18. 2.~9. 美 바이오 회사의 자금 투자, 암치료제 공동개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甲사 주가를 상승(종가 기준 3,480원→27,150원)시켜 부당이득 631억 원 취득(실현이익 627억 원) [자본시장법위반]

※ 甲사(전기·조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)는 '23. 4. 7. 및 '24. 3. 20. 각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현재 상장폐지 심의 중임

# 3

## 수사 경과

- '23. 2. 6. 금융위 통보(Fast-Track) 및 금융수사과 지휘
- '23. 2.~'24. 7. 금융수사과 압수수색, 피의자 등 조사
- '24. 7. 8. A, B 구속 ('24. 7. 15. 송치)
- '24. 7. 20. C 구속 ('24. 7. 24. 송치)
- '24. 7. 31. A, B, C 구속 기소, D 기소중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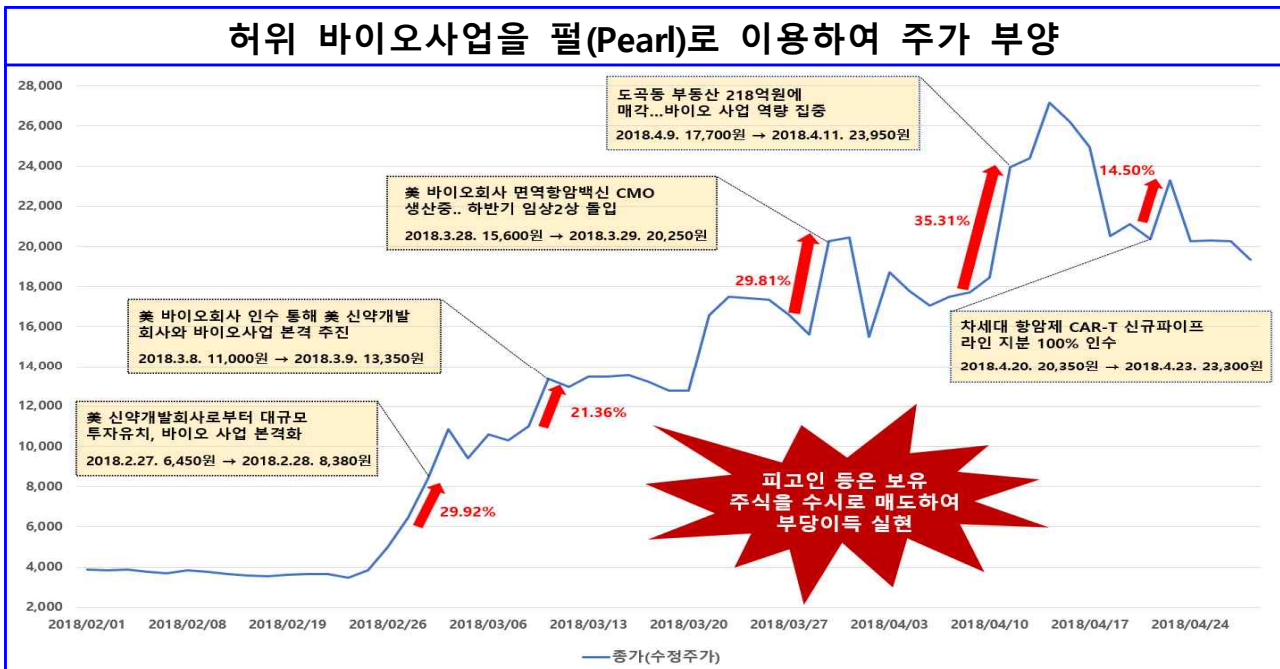
# 4

## 수사 결과 및 의의

### 신규 바이오 사업을 소재로 한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조작

- [공모 경위] D는 2016.경 甲사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무자본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,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미국 신약개발 회사와 암치료제를 공동개발하는 신규 바이오 사업을 소재 [일명 '펄(pearl)']로 삼아 주가 부양 및 차익 실현을 도모

- [허위 공시] 피고인 등이 설립한 법인, 조합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,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마치 바이오 사업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1,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
- [허위 보도자료] 美 신약개발 회사와 암치료제 공동개발, 바이오 사업에 1,000억 원 투자, 임상2상 진행 후 암치료제 판매 예정, 암치료제 원천기술 이전, 나스닥 상장 진행 등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
- [부당이득 실현] 허위 공시·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甲사 주가를 부양한 후 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고,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 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



**압수수색 등을 통한 범행 전모 규명 및 피고인들 신병 확보**

- 약 1년 5개월 동안 공시 및 언론기사 분석, 관계자 조사, 사무실·주거지 등 압수수색, 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로 다수 증거를 확보하여 이 사건 바이오 사업이 허구임을 밝혀내는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
- 피고인들 중 국내에 있던 A, B는 '24. 7. 8. 구속하였고,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C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'24. 6. 23.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 후 국내 송환하여 '24. 7. 20. 구속하였음

※ D는 '22. 7. 2. 해외 도피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중임

## 5

## 향후 계획

-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·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,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 